

민형배 18.5%·김영록 16.8%…與 통합단체장 적합도 박빙

광남일보·KBC 공동, 광주전남통합단체장 후보 여론조사

광주는 민형배, 전남은 김영록 우세…지역별 선호 엇갈려
신정훈·주철현·강기정 등 중위권 형성…후보군 다자구도
부동층 19% 달해…민주당 경선 판세 선거 막판 변수될 듯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우,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이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혼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만큼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의 시합을 건 공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광남일보와 K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광주·전남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이 18.5%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8%, 신정훈 국회의원은 9.4%를 기록했다. 이어 주철현 국회의원(7.6%), 강기정 광주시장(7.0%),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6.3%), 이용섭 전 광주시장(6.1%), 이개호 국회의원(5.4%), 정준호 국회의원(3.8%) 순이었다. 기타 인물은 3.0%. 없음 또는 모름은 16.0%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27.0%), 김영록 전남도지사(10.4%), 강기정 광주시장(9.0%)이 강세를 보였다. 전남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21.7%), 신정훈 국회의원(12.2%), 민형배 국회의원(12.0%), 주철현(11.7%) 국회의원 순으로 후보적합도가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18.5%로 가장 높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16.8%), 신정훈 국회의원(9.4%), 주철현 국회의원(7.6%), 강기정 광주시장(7.0%) 순이었다. 여성도 민형배 국회의원(19.5%), 김영록 전남도지사(16.8%), 신정훈 국회의원(8.8%), 주철현 국회의원(8.2%), 강기정 광주시장(8.0%) 순서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단체장 후보적합도



연령대별로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가장 높았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 21.0%, 김영록 전남도지사 18.6%, 신정훈 국회의원 11.2%를 기록했다. 이어 주철현 국회의원(8.7%), 강기정 광주시장(7.1%),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6.4%), 이개호 국회의원(5.5%), 이용섭 전 광주시장(5.1%), 정준호 국회의원(4.1%) 순이

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후보적합도가 20.3%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 힘에서는 이병훈 수석부위원장(12.5%), 진보당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25.5%)이 선두를 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적합도는 5명 중 1명 가량인 19.0%(기타 0.3%·무응답 16.0%)가 응답을 유보해 부동층 표시에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산화 기사 goback@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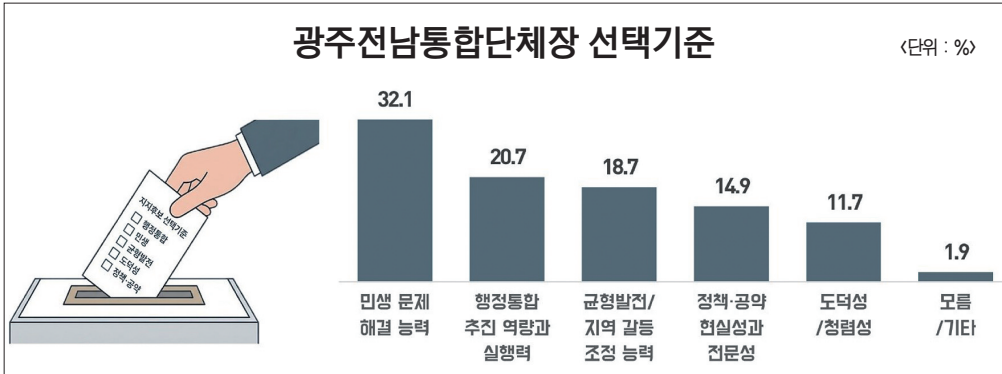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택 1순위는 ‘민생’

지역경제·일자리 ‘32.1%’
행정통합 추진 역량 등 순

광주·전남이 통합돼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경우, 유권자들은 지역경제·일자리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지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이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경우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으로 '지역경제·일자리 등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이 32.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행정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실행력'이 20.7%, '광주·전남 균형발전과 지역 갈등 조정 능력'이 18.7%, '정책·공약의 현실성과 전문성'이 14.9%, '도덕성·청렴성 등 인물 신뢰도'가 11.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민생 문제 해결 능력(33.5%), 행정통합 추진 역량과 실행력(20.6%), 정책·공약의 현실성과 전문성(20.0%) 순으로 조사됐고, 전남에서는 민생 문제 해결 능력(30.9%), 지역 갈등 조정 능력(20.9%), 행정통합 추진 역량과 실행력(20.7%)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2·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행정통합 찬반 여부에 따른 응답에서도 민생 문제가 최우선 기준으로 나타났다. 행정통합 찬성 응답자들은 민생 문제 해결 능력(33.2%), 행

정통합 추진 역량과 실행력(23.2%), 지역 갈등 조정 능력(18.8%) 순으로 응답했고, 반대 응답자들은 민생 문제 해결 능력(26.3%), 지역 갈등 조정 능력(21.4%), 정책·공약의 현실성과 전문성(19.6%)을 주요 기준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를 활용한 100%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당지지도 민주당 압도적 1위 ‘70.2%’

조국혁신당·국민의힘 7.7% 동률

6·3 지방선거가 1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의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광주·전남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이 70.2%로 가장 높은 정당지지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7.7%를 동률을 기록하며 치열한 2위 다툼을 펼쳤다. 이어 진보당(3.3%), 개혁신당(2.2%), 기타 정당(1.4%)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7.4%였다.

남성은 68.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으며, 국민의힘(10.3%), 조국혁신당(7.2%), 진보당(3.4%), 개혁신당(2.3%) 순이었다. 여성은 더불어민주당(72.2%), 조국혁신당(8.2%), 국민의힘

(5.0%), 진보당(3.2%), 개혁신당(2.2%) 순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올렸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80.3%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6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10.0%), 조국혁신당(7.3%), 진보당(4.4%), 개혁신당(3.1%)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더불어민주당(74.1%), 조국혁신당(8.1%), 국민의힘(5.9%), 진보당(2.5%), 개혁신당(1.6%) 순이었다.

이산화 기사 goback@gwangnam.co.kr

권역별 지지후보 들여다 보니

광주는 민형배-김영록-강기정 전남은 김영록-신정훈-민형배 순

지역별 선호 달라 합동연형 변수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이 유력해지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이 첫 통합해 선거를 치르게 되는 만큼 후보자들 간 합동연형 등 복잡한 정치적 선택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광남일보와 K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광주·전남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27.0%로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적합도를 기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10.4%), 강기정 광주시장(9.0%)이 뒤를 이었으며, 이용섭 전 광주시장(7.5%),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6.9%), 정준호 국회의원(6.9%), 신정훈 국회의원(5.7%), 이개호 국회의원(3.5%), 주철현 국회의원(2.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물은 3.4%. 없음 또는 모름은 17.5%로 집계됐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광주 5개 자치구에서도 가장 높은 후보적합도를 올렸다.

동구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24.3%로 가장 높았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12.4%), 강기정 광주시장(11.0%), 정준호 국회의원(9.3%), 김영록 전남도지사(7.1%) 순으로 집계됐다. 서구는 민형배 국회의원(24.0%), 김영록 전남도지사(14.2%), 이용섭 전 광주시장(11.5%), 강기정 광주시장(10.4%) 순이었다. 남구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16.5%, 신정훈 국회의원(13.1%)을 기록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10.5%)과 김영록 전남도지사(10.4%)가 뒤를 이었다. 북구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25.0%로 가장 앞섰다.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9.8%), 정준호 국회의원(9.7%), 이용섭 전 광주시장(9.6%) 순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37.9%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10.3%), 김영록 전남도지사(9.3%), 정준호 국회의원(7.1%)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7%로 타 후보들과 격차를 냈다.

이어 신정훈 국회의원이 12.2%, 민형배 국회의원이 12.0%로 추격했다. 이어 주철현 국회의원(11.7%), 이개호 국회의원(6.9%),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5.8%), 강기정 광주시장(5.4%), 이용섭 전 광주시장(5.1%), 정준호 국회의원(1.4%)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근교권(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에서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22.4%로 가장 높은 후보적합도를 올렸고, 김영록 전남도지사(16.3%), 민형배 국회의원(12.0%), 이개호 국회의원(10.2%)이 뒤를 이었다.

전남동부권(광양·순천·여수·고흥·곡성·구례·보성)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15.8%), 주철현 국회의원(14.8%), 신정훈 국회의원(11.3%), 민형배 국회의원(11.1%) 순이었다.

서남권(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해남·진도)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3.2%로 가장 앞섰다. 이어 민형배 국회의원(13.4%), 주철현 국회의원(9.6%), 신정훈 국회의원(7.4%) 순으로 나타났다.

이산화 기사 goback@gwangnam.co.kr

여론조사 무엇을 물었나

01. 먼저 귀하께서 남성이시면 ①번 여성이시면 ②번을 눌러주세요.

02. 귀하의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면 ①번 전라남도면 ②번 다른 지역이시면 ③번을 눌러주세요. (조사 종료)

(광주) 03-① 그림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번 동구 ②번 서구 ③번 남구 ④번 북구 ⑤번 광산구

(전남) 03-② 그림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번 나주시, 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군(광주근교권) ②번 광양·순천·여수시, 고흥·곡성·구례·보성군(동부권) ③번 목포시, 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해남·진도군(서남권)

04. 귀하의 연령대는 만 나이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번 만 17세 이하 (조사 종료) ②번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③번 30대 ④번 40대 ⑤번 50대 ⑥번 60대 ⑦번 70세 이상

△광주전남 행정통합 찬반

05. 귀하께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번 찬성한다 ②번 반대한다 ③번 모름/기타

△행정통합 찬성 이유

06-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찬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번 광역 단위로 행정·정책을 통합해 추진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서

②번 재정·예산 확보나 국비 지원 등 재원 측면의 이점이 있어서

③번 산업·일자리·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④번 광역 경쟁력과 대외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어서

⑤번 행정서비스의 표준화·연계 등 주민 편의가 높아질 수 있어서

⑥번 모름/기타

△행정통합 반대 이유

06-②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번 행정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할 수 있어서

②번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③번 지역의 정체성·자치권이 약화될 수 있어서

④번 행정체계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질이 낮아질 수 있어서

⑤번 특정 지역으로의 기능·예산 쏠림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서 ⑥번 모름/기타

△통합단체장 지지후보 선택기준

07. 만약 광주·전남이 통합되어 '통합단체장'을 뽑게 된다면,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번 행정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실행력

②번 지역경제·일자리 등 민생 문제 해결 능력

③번 광주·전남 균형발전과 지역 갈등 조정 능력

④번 도덕성·청렴성 등 인물 신뢰도

⑤번 정책·공약의 현실성과 전문성 ⑥번 모름/기타

△통합단체장 다자대결

08. 만약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경우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환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①번 강기정 현 광주광역시장 ②번 김영록 현 전라남도지사

③번 민형배 현 국회의원 ④번 서왕진 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⑤번 신정훈 현 국회의원 ⑥번 이개호 현 국회의원

⑦번 이병훈 현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⑧번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⑨번 정준호 현 국회의원

⑩번 주철현 현 국회의원 ⑪번 기타 후보 ⑫번 없음 ⑬번 모름

△민주당 통합단체장 적합도

09. 그림,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환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①번 강기정 현 광주광역시장 ②번 김영록 현 전라남도지사

③번 민형배 현 국회의원 ④번 신정훈 현 국회의원

⑤번 이개호 현 국회의원 ⑥번 이병훈 현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⑦번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⑧번 정준호 현 국회의원

⑨번 주철현 현 국회의원 ⑩번 기타 후보 ⑪번 없음 ⑫번 모름

△정당지지도

10. 귀하께서 현재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 가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순환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①번 더불어민주당 ②번 국민의힘 ③번 조국혁신당 ④번 진보당

⑤번 개혁신당 ⑥번 기타 정당 ⑦번 없음 ⑧번 모름

여론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광남일보와 K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2026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각 509명, 491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방법은 국내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4%였으며, 광주는 410명, 전남은 590명이 조사를 완료했다. 통계보정은 2025년 12월 말 기준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